

위기의 환경, 현대미술로 풀어내다

무등현대미술관, 8월 25일까지
환경미술제 'Green Cloud' 전
11명 작가 설치·조각 등 14점 전시
“인간 욕심 위한 자연의 희생 메시지”



제8회 환경미술제가 광주무등현대미술관에서 오는 8월25일까지 열린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환경미술제를 열어왔다. 인간, 환경, 그리고 문화예술이 아우러진 기획전이다. '보존이 미래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 '느림의 미학', '21세기 토테미즘'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전시에는 지금까지 국내외 76명의 작가가 참여, 다양한 시선으로 환경문제를 풀어냈다.

오는 8월 25일까지 열리는 제 8회 환경미술제는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기획이다. 국제 사회가 지구 환경 보존의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한 게 49년 전이지만, 오만한 인간들은 환경파괴를 서슴지 않았고, 그 무서운 경고가 일상을 마비시켜 버리는 코로나 19사태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주제는 'Green Cloud'. 녹조가 낀, 병들어가는 수질이 하늘에 비취져 초록구름으로 변질되어버린 아픈 현실을 담고 있다.

전시에는 모두 11명의 작가가 참여해 14점을 선보이고 있다. 설치와 조각 작품들이 많아 자유로운 전시장 구성이 눈에 띄며 실내 공간 뿐 아니라 야외 전시장도 함께 활용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누군가를 주시하는 듯한 붉은 두꺼비가 눈길을 끈다. 황은서 작가의 '상실'이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인간들의 이동에 편리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 무엇인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연호 작가의 설치 작품 'Greed' 도 만날 수 있다.

또 바닥에 깔린 도자기와 서예 작품으로 구성된 김치준 작가의 '무등이 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다'는 효율과 편리, 이윤 추구에만 몰두 한 채 그 근본 바탕인 자연과 생명이 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작품이며 김주연 작가의 '이숙異熟 IX'은 자신이 입었던 옷에 씨앗을 심고, 싹 틔운 옷을 사진으로 촬영한 작품을 통해 생명의 소멸과 탄생을 이야기한다.

기를 전하는 고정훈작가의 '숨'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압박으로 뿔어져 나오는 순간을 시각화해, 내밀한 삶을 표현했으며 철을 소재로 한 김태양 작가의 조각 작품 'Deep'은 보이지 않는 심해(深海) 속에서 생명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고대 생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밖에 김석준 작가의 '신기루'는 인간의 욕심으로 죽어가는 동물과 자연, 보이는 것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의 공허한 시선을 담아낸 작품이며 윤석재 작가의 '생존'은 인간은 환경에게 진 큰 빚을 갚아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에는 정명진·성연호·최희원 작가 등도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향기 그윽한 시로 소통하고 싶어”

조선의 시인 낭송시집 '꽃으로 오는 소리' 발간

꽃을 소재로 엮은 낭송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문명관문학연구소 초빙교수로, 담양 인문학교육 시 창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의 시인인 낭송시집 '꽃으로 오는 소리' (시꽃피다)를 발간했다. 지난 2월 '꽃, 향기의 밀서'를 펴낸 지 5개월 여 만에 새 작품집을 펴낸 것.

시인은 "꽃을 소재로 적잖은 시들을 써왔는데, 묵혀두기보다는 향기 그득할 때 독자들에게 소통하고 싶었다"며 "이번 시집에는 꽃과 나무에 깊이 빠져 있던 지난 시간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작품집에는 어리연꽃, 진달래꽃, 봉숭아, 민들레, 짙레꽃, 자운영, 인동초, 살구꽃, 해바라기, 장미, 상사화, 능소화 등 모두 52편의 '꽃'이 담겨 있다. 가만가만 꽃들의 이름을 불러보면 마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어떤 연유에서 낭송시집을 출간했느냐는 물음에 화두와 같은 답이 돌아온다. 그대로 읊기만 낭송하기에 맞춘

한 시가 된다. "화들짝 꿈꾼 허구에/ 험기증만 덩그러니/ 신명 하나 얻지 못해/ 침묵 또한 깊은가/ 숨 고른 빈터마다/ 생의 벼랑 걸디는 꽃/ 천기를 예감했을까/ 바람보다 가볍게 풀어내는 소리의 춤사위"

그는 꽃을 가까이하면 누구든 힐링이 된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꽃을 가까이 하는 사회 또한 언젠가는 밝아진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아마도 농원을 운영했던 경험이 그의 시심의 발원지인 듯했다.

"을 밑에 봉숭아꽃 피어나면/ 어머니 손톱에는 붉은 강이 흘렀습니다// 홀로 견뎌야 하는 세상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눌러야 했습니다/ 오래된 꿈 밖에서 / 가난은 산짐승처럼 웅크린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들도 마음껏 노래할 수 없었던 시기에/ 배롱은 오후를 지나온 도둑 같은 밤이/ 장독대 소금항아리를 뒤덮으면 / 파사로운 별빛이 손톱 깊이 젖어들었습니다"('봉숭아



꽃물' 중에서) 위 시 '봉숭아 꽃물'은 화자의 기억 속에 드리워진 내밀한 슬픔을 담고 있다. 가난하던 시절, 집안을 꾸려가던 어머니의 손톱에 묻든 '붉은 강'은 화자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돼 있다. 나지막이 읊조리면 감정이입이 되는 아름다운 시다.

문학평론가 박철영 시인은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풀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했다"며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조 시인은 농민신문문에, 기록신문신문문에, 미션신문신문으로 등단했으며 신석정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어쩌면 쓰러진 날은 꽃 피는 동인이다', '빛을 소환하다' 등 6개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하사탕’ ‘라보엠’ 출연배우 모집합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 15일~21일 접수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올 하반기에 선보일 ‘박하사탕’과 ‘라보엠’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모집한다.

‘박하사탕’은 이상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로 지난해 1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초연했다.

10월 8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공연하며 올해는 전남도청 시위 장면을 대규모 합창으로 표현하고, 3관 관현악 편성해 2막7장 전막을 그랜드 콘서트 오페라로 선보인다.

실기전형은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지방 배역 아리아 2곡과 자유 아리아 1곡 등 총 3곡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 반주자를 동반해야 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과 공동으로 제작하며 오는 11월30일 광주 초연을 시작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안동문화예술회관 등에서 10여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오디션은 지역 출신 제한경쟁으로 치러진다. 실기전형은 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지방 배역 아리아 1곡, 자유 아리아 1곡 등 총 2곡을 준비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박하사탕’과 ‘라보엠’ 모두 15일부터 21일까지이며 오디션 최종 합격자는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초연한 ‘박하사탕’ 공연 모습.

한국화부터 일러스트까지

무등아트오늘회 회원전, 8일까지 무등갤러리

무등아트오늘회 제23회 회원전이 8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컴퓨터그래픽, 사진, 서양화, 한국화, 민화, 서예, 그래픽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에는강맹순·강순애·김우진·김지영·김홍식·마해경·박근수·박순덕·서경애·서원길·손은정·이경현·장복자·정기문·정기석·정연식·정원석·조추욱·최승우·황윤수 등 2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무등아트오늘회는 1976년 전남매일신문 디자인실장을 맡고 있던 서원길씨가 광주지역 디자이너들과 뜻을 모아 창립한 무등그래픽디자인회로 시작했으며 그해 4월 광주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가졌다.

특히 무등그래픽디자인회는 그래픽 디자인이 생소하던 시절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산파역할을 수행해 냈다.



정연식 작 '주렁 주렁'

단체는 1990년대 후반 17번째 전시를 끝으로 휴식이 들어갔다가 지난 2015년 무등그래픽사화오늘전회로 이름을 바꾸고 18번째 회원전을 열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목포와 순천에서 각각 순회전을 열었고 2019년 무등아트오늘회로 이름을 다시 바꿔 광주에서 회원전을 개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행사부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종 연회 행사”는 Bentley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